

과학 기술의 대중화

이 주 호

매일경제신문사 과학기술부 부장

지 난 4월은 과학의 달이었다. 올해는 국민 생활의 과학화를 위해 과학의 날(21일)이 제정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로, 그 어느 때보다 다채로운 행사가 치루어졌다.

특히 「21세기 밝은 미래, 과학하는 마음으로」라는 주제로 여의도 한강 시민 공원에서 1주일 동안 펼쳐진 「제1회 대한민국 과학 축전」은 과학 기술 대중화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뜻깊은 행사였다.

세계적으로 신국제 질서가 형성되면서 기술 헤게모니 전쟁이 한층 두드러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진 각국은 국가 전략의 핵심을 과학 기술에 두고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과학 기술 대중화 사업에 비중을 두고 있다.

기자는 지난해 말 한국과학재단 후원으로 7박 8일 동안 영국·프랑스·독일 등 세 나라를 방문, 각국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펼치고 있는 과학 기술 대중화 노력을 살필 기회가 있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영국의 과학 기술 대중화 사업이 인상적이었는데, 오늘날 영국 경제가 회복되는 데 일조를 한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였다.

영국은 지난 93년 「잠재력의 인식-과학 기술 전략」이라는 표제의 <과학기술백서>에서 국민의 과학 기술

이해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하나의 정책 목표로 채택하였다.

특히 청소년의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 유도는 우수한 인력을 과학 기술 부문에 유치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향상에 필수적이라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과학기술청이 공식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 시기는 94년부터이며 매년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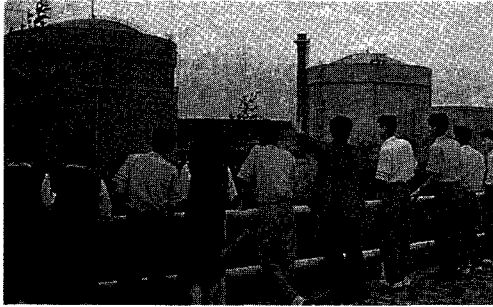
과학 기술 대중화를 이끄는 기관은 로열소사이어티의 과학기술이해사업위원회·영국과학진흥협회·영국왕립협회이며 개스비(Gatsby) 웰컴 트러스트(Welcome Trust) 등 자선 재단과 기업·대학·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기업은 각종 과학 기술 이해 사업 후원자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들이 과학 기술 대중화에 앞장서면서 내세우는 논리적 근거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즉 과학 기술 대중화를 통해 유능한 과학 기술 청소년이 육성되면, 그들이 결국 자신들의 기업을 키우는 인재가 된다는 것이다.

과학 기술 대중화의 열매를 자기네 기업들이 따먹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얘기다.

이같은 배경하에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영국의 과학 기술 대중화 운동은 오늘날 영국의 경제를 회생시



“
우리가 염원하는 21세기 초 과학 기술
선진국 진입의 꿈은 국민의 과학 기술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과학 기술에 대한
흥미를 잃고 국민의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과학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

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영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과학 기술 대중화 사업은 실로 다양하다.

과학기술진흥협회가 매년 가을 1주일간 개최하는 과학 축제를 비롯 과학 주간 행사, 크리스마스 과학 기술 강연, 과학 강연자의 데이터 베이스, 과학 대중화 사업 공로상, 과학 도서상, 과학 이해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개방 실험실 운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과학 기술 세미나 등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다.

과학 기술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는 과학 기술자의 언론 이해 워크숍, 과학 기술자의 언론 기관 내 수습 파견, 과학 기술자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법 안내 책자 발간, 과학 기술자의 국회 파견, 여성의 과학 기술계 참여 장려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도 청소년 과학 클럽(BAYS) 운영, 기술자 성공의 해 행사, 청소년 과학 작문상, 저명 과학자와 학교의 연계, 중학교 교사와 과학자의 연계 등 다채로웠다.

영국의 과학 기술 대중화 운동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척 컸다.

물론 우리 나라도 나름대로 부분적으로 과학 기술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이해를 높이려고 하고 있으나, 영국

처럼 체계적이고 구체적이며 지속적으로 과학 기술 대중화 운동을 추진할 필요성을 느꼈다.

함께 둘러 본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도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과학 기술이 생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왜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과학 기술 대중화 사업을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 펼침으로써, 21세기 과학 기술 선진국으로서의 확고한 자리매김을 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이들 나라에서 둘러본 사이언스 뮤지엄(과학 박물관)의 시설은 「과학 기술이 바로 우리 생활」이라는 인식을 갖게 할 정도로 잘 되어 있어, 우리 나라도 이 분야에 좀 더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기도 하였다.

우리가 염원하는 21세기 초 과학 기술 선진국 진입의 꿈은 국민의 과학 기술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과학 기술에 대한 흥미를 잃고 국민의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과학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전국민의 과학화는 결과적으로 과학 기술의 튼튼한 토대를 만들어 주고 이것은 또한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과학 기술 대중화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